

‘슈퍼 4연전’ 이번은 없었다

신당 경선 광주·전남, 부산·경남서도 정동영 1위

2위 손학규 후보에 11%P차 앞서



이번은 없었다.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지난 2002년과 달리 특정 후보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아직은 전략적 선택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시대정신을 이끌어갈 만한 후보가 없다고 여겨서였을까. 투표율마저도 저조해 여전히 관망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관련기사 3면>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지난달 29~30일 광주·전남과 부산·경남의 ‘슈퍼 4연전’에서 정동영 후보(사진)가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영·호남 양쪽에서 모두 승리한 정 후보는 ‘대세론’에 본격 시동을 걸게 됐고 남은 경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정 후보는 지난달 29일 실시된 광주·전남 경선에서 유효투표 수 5만5천797표 가운데 2만6천65표(46.7%)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손학규 후보(1만

지역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광주	7,948 (34.9%)	10,841 (47.6%)	4,007 (17.6%)
전남	11,958 (36.2%)	15,224 (46.1%)	5,819 (17.6%)
부산	4,508 (25.3%)	6,689 (37.5%)	6,614 (37.1%)
경남	4,069 (31.7%)	4,461 (34.8%)	4,276 (33.3%)
누적 합계	37,851 (31.9%)	51,125 (43.1%)	29,641 (24.9%)

※누적합계는 경선 초반 제주·울산·강원·충북지역 결과 포함, %는 득표율

9천906표, 35.7%)와 이해찬 후보(9천826표, 17.6%)는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 후보가 호남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조지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세 후보에게 고루 표가 분산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어 30일 치러진 부산·경남 경선에서도 정 후보는 유효투표 수 3만617표 가운데 1만1천150표를 얻어 2위인 이해찬 후보(1만890표)에 불과 260

여 표 차의 신승을 거뒀고, 손학규 후보는 8천577표를 얻었다.

이에 따라 정 후보는 지금까지 실시된 8개 지역 경선에서 누적 유효투표 수 11만8천617표 가운데 5만1천125표(43.0%)를 얻어 선두를 지켰다. 손 후보는 3만7천851표(31.9%)로 2위, 이 후보는 2만9천641표(24.9%)로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초반 4연전 승리 이후 손·이 후보의 집중경쟁을 받은 정 후보는 범여권의 상징적 지역인 광주·전남 경선과 이 후보의 우위가 점쳐졌던 부산·경남에서도 수위를 고수해 일단 경선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손 후보는 초반 경선 패배 후 ‘집거’와 ‘선대본부 해체’란 초강수를 두며 지난 주말의 ‘슈퍼 4연전’에 ‘올인’했지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지는 못했고, 이 후보도 3위에 머물러 친노 후보 단일화의 효과를 별로 보지 못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김만영 한인회장이 전한 ‘미안마 사태’



미안마 군인들이 지난달 29일 양근 중심가에 있는 숲에 파고다 주변에서 소규모 시위대의 진입을 봉쇄하기 위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연합뉴스

휴교·통행 금지...외곽 봉쇄...피의 학살...

“80년 광주 빼담았다”

미안마 승리와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군부에 의해 강제 무력진압된 후 미안마는 외부와 격리된 채 ‘고독의 섬’이 돼가고 있다. 미안마의 시위는 민주화를 외치며 신군부에 맞서다 탱크와 총탄에 밀려 고립됐던 1980년 광주의 5월과 너무나 닮은 꼴이다. 특히 시위 사망자수도 미안마정부의 공식 발표인 9명에서 일부 외신의 200여 명까지 그 차이가 커 ‘피의 학살’인 5·18 광주를 연상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미안마 반정부 시위사태가 13일째 계속된 지난달 30일 본보는 김만영(58·무역업) 미안마 한인회 회장과 통화해 현지 상황을 전해 들었다. 김 회장과 통화는 김 회장의 휴대폰을 통해 시도됐으나 통화 도중 전화가 수차례 끊기는 등 미안마 현지의 통신사정은 극히 불량했다.

미안마 최대 상업도시 양근에서

14년째 살고있는 김 회장은 “군부에 의해 뉴스가 통제되는 데다 온갖 소문이 떠돌고 있어 현지 교민들은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며 그나마 외신보도를 통해 그때그때 실정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군부가 양근 시내 중심가인 웨다군 파고다와 숲에 파고다 근처 등 주요 건물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일반인의 접근 자체가 어려워 더 이상의 대규모 시위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시민들의 저항이 언제 다시 불타올지 모르는 상황이다”고 현지 사정을 전했다.

김 회장은 “시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 친인척 안부를 묻는 전화가 폭주하고 군사정부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제하는 바람에 통신사정도 원활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근과 만달레이 등 몇몇 지역에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금지가 내려지고 집회금지령과 함께 각 학교에는 무기한 휴교령이 떨어졌지만 교민 철수를 결정할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번 사태로 통행금지가 실시되면서 평소 야간 작업을 해왔던 교민 기업체가 큰 곤란을 겪고 있다”며 “교민들이 운영하는 여행관련 업체는 사실상 율스톱된 상태여서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안마 군사정부는 양근 시내에서 진압군과 시위대의 충돌로 일본 사진기자를 포함, 9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했으며 진압군도 31명이 부상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반면 미국 워싱턴 소재 반(反)군사정부 단체인 ‘버마를 위한 미국 운동’은 유혈 진압으로 시위 참가자 약 2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기자 unipark@kwangju.co.kr>

“北 핵시설 3곳 연말까지 불능화”

6자 회담 합의문 극적 타결...내일 공식 채택

비핵화 2단계 로드맵을 담은 6자회담 합의문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관련기사 6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베이징(北京)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제6차 2단계 회의 마지막 수석대표회의를 갖고 비핵화 2단계 행동계획이 명시된 합의문 극적으로 타결시켰다고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전했다.

의장국 중국은 수석대표 차원에서 합의문 문서에 대한 본국 정부의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해 이틀간 회의 일정을 휴회하고 10월2일 다시 회의를 열어 합의문 채택 여부를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천 본부장은 “본국 정부 청원을 필요로 하는 대표단이 있기에

각 대표단이 본국 정부와 협의할 시간을 준 다음 이를 동안 회의를 휴회하고 이를 후 회의를 속개, 합의문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문은 ‘9·19 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로 명명됐으며 2·13합의에 준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천 본부장이 말했다.

합의문은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관련, 대상시설을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로 하고 불능화 시한을 연말까지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개 시설의 핵심 부품을 제거한 뒤 일정기간(12개월 가량) 북한측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특별관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南北정상회담
3일 두차례
盧대통령 내일 방북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2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건너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두차례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5면>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직접 환영행사에 나올 경우 이를 포함, 수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식 회담은 방북 둘째날(3일) 오전과 오후 2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채희종기자 chae@연합뉴스>

우일백년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ac.kr

세계로 뻗어나는 미래

진남과학대학
http://www.jn.ac.kr

노·사가 함께하는 “진남교육발전·조합원 권역심장”

제2회
진리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동할마당

일시: 2007. 10. 13(토) 09:00~17:00
장소: 진안심내체육관 일동
주최: 진안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주최: 진안남도교육청